

설날 명절 가정예배

(이 예배는 집안의 어른이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예배의부름 인도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다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새번역)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438장(내 영혼이 은총 입어) / 다같이

1.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대 표 기 도 가족 중에서

▶성 경 봉 독 시편 127:1 / 인도자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 씬 선 포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

시편 127편은 가정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명절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고 지키시는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기록합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물리적인 건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는 모든 수고를 의미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서로를 돌보지만,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

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초를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진정한 건축가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말씀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우리는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우리 가정의 완전한 보호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간구함에 거할 때 참된 안전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신 신앙의 결단을 가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지키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자매는 서로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도 그 용도와 쓰임 그리고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얻었다 하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가 없다면 이와 같습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 찬 송 559장(사철에 봄 바람 불어 잇고) /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주 기도 문 (새번역)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